

# ‘가정의달’ 카드·보험사, 해외여행객 핀셋 마케팅 본격화

5월 해외여행 역대급 기록 예상

삼성·KB·NH농협 등 카드업계  
사용금액 따라 할인·포인트 혜택

삼성화재, 결항 추가비 특약 등  
보험업계 해외여행자보험 선배



삼성 ID 노마드(왼쪽), KB국민 위시 올(A II)카드 플레이트 이미지. /각사

5월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늘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환전혜택은 물론 여행자보험 가입을 알뜰하게 챙기려는 수요도 많다. 카드사와 보험사도 ‘가정의달’ 특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월은 운수업 부문 카드승인실적이 통상 올라간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 2019년 5월 운수업 카드승인금

액은 1조4900억원에 달했다. 직전 달 대비 400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8년 5월 또한 운수업 부문 카드승인금액이 한 달 사이 2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 ◆카드사, 포인트 적립 등 혜택

업계에서는 5월에 해외여행객이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월 운수업 카드승인금액이 1조4700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1조3900억원)과 2019년(1조

3500억원) 2월에 비교하면 각각 800억원, 1200억원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환전과 포인트적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해외여행 특화 카드가 공항라운지, 발렛파크 등 편의성 제고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실용성을 강조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카드는 올해 ‘삼성 ID 노마드(NOMAD) 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연 1회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2만원을 할인하는 기프트카드를 발행했다.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 위시 올(A II)카드’를 출시했다. 해외가맹점에서 결제시 사용금액의 2%를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국내 사용금액 1%는 무제한 적립이 가능하다.

NH농협카드의 ‘zgm.휴가중’은 호

텔스닷컴코리아와의 제휴를 통해 숙소 예약때 혜택을 준다. 전월 실적과 할인한도 제한없이 숙소금액의 20%를 월 4회 할인한다. ‘호캉스’, ‘바캉스’ 등을 즐기는 여행객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환전에는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가 제격이다. 8개국의 통화(달러·엔화·유로화 등)를 대상으로 결제 및 현금 인출기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머니를 사용하면 환전수수료도 100% 우대한다.

## ◆보험사도 해외여행상품 선보여

보험업계 또한 여행객 잡기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계약건수는 22만98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6479건)와 비교하면 1241%나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다이렉트 착 해외여행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의료비, 타인의 손해배상, 휴대폰 손해 보상, 여권을 분실 후 재발급 비용 등을 보장한다. 추가로 ‘항공기·수화물 지연 결항 추가비용 특약’을 통해 항공기 지연 피해를 담보한다.

이 밖에도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의 중소 손보사 또한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해외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특약으로 담는 등 해외여행객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 5월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경우 일상과 밀접하다 보니 가정의 달 특수에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인천 제1금고’ 신한銀, ADB 연차총회 후원

3년 만에 송도서 대면으로 개최  
60여개국 5000명 관계자들 참여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홍보관 운영

신한은행이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후원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ADB는 1966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회원국의 극심한 빈곤퇴치를 위해 대출, 기술 지원, 보조금 및 자본 투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ADB 연차총회는 회원국 거버너들이 ADB의 행정, 재정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ADB의 최대 행사다. 이번 제56차 ADB 연차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만에 인천 송도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며, 60여개국 약 5000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14일 기획재정부와 ADB 연차총회 후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업전시부스 운영 ▲네트워킹 허브 공용공간 조성 ▲참가자 오찬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번 연차총회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소재로 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음식주문 중개 플랫폼 ‘뽕겨요’를, 신한카드는 ‘페이스페이(Face Pay)’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ADB 연차총회 개최지인 인천광역시 제1금고 은행으로서 참가자들이 공항, 행사장, 숙소 등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약 30대의 셔틀버스를 후원하고, 편리하게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점포 ‘뱅크드’도 배치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현대해상, 티맵 운전점수로 최대 8% 할인

### 보험 브리핑

흥국생명, 불법거래 방지역량 강화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  
DBG생명, 분기기준 최대실적 달성  
유상증자 단행 등 적극적 자본 확충

현대해상이 티맵(TMAP)사용자를 위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안전점수 70점 유지, 보험료 8% 할인  
현대해상은 티맵모빌리티와 업무제휴를 통해 티맵의 사용자들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전할인 특약(UBI)’ 가입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오는 6월 1일 이후 책임 개시 되는 계약부터 시행한다. 티맵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정특약가입 조건에 제한 없이 직전 6개월동안 500km이상 주행한 운전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 8%를 할인해 준다.

티맵 사용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보험사가 안전운전점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흥국생명이 의심거래보고제고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소중한 자금’ 지키기  
흥국생명은 다음달 19일까지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및 자금세탁 등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업무 특성화 교육과 임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교육하고, 자금세탁 목적의 의심거래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금융거래 중의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된 거래 ▲자금의 원천 및 형성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탈세 및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를 보고한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켜 불법 금융거래 및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DGB생명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변액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성과

DGB생명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인 306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약서비스마진(CSM)은 6923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3.4% 증가했다. CSM 수치는 6923억원으로 순보험부채 대비 CSM이 차지하는 비중(13.5%)은 업계 상위권이라는 설명이다.

과거당기순이익 추이에는 등락이 있었지만 CSM상각 등을 통해 사회계제도(IFRS17)에서는 회사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DGB생명은 새 제도에 적응에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770억원에 이어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본을 확충한 것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유사시 韓 뱅크런 더 빨라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시급

» 1면 ‘모바일 뱅크런에...’서 계속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예치금 중 63%는 기업고객 자금이었고, 예금자 보호한도 25만달러(약 3억원)를 넘는 비중은 68%에 달했다. FDIC가 개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손실을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 인출을 강행했다.

◆韓 뱅크런 더 빨라... ‘차액결제 담보비율’ 높여야

문제는 비단 이 같은 문제가 미국에서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24일 간담회에 참석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모바일뱅킹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뱅크런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예금 인출 속도는 100배는 빠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2023년 미국은행 파산 현황〉

은행명 (설립연도)	실버게이트 (1988)	실리콘밸리은행 (1983)	시그니처은행 (2001)	퍼스트리퍼블릭 (1985)
파산(폐쇄)일	3월8일	3월10일	3월12일	5월1일
자산규모(달러)	114억	2086억	1100억	2330억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계획 변경안〉

	현재	2023.08	2024.08	2025.08
차액결제 담보비율	70	80	90	100

뱅크런에 따른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떠오르는 방안은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한국은행이 은행 간 차액결제 실패를 대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놓는 담보증권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 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일정시간 동안 발생한 이체 등의 자금거래를 취합해 각 금융기관마다 줄 돈,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한다. 한국은행은 그 중 소액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 오전 11시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은행이 갑자기 파산에 이를 경우 차액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은행은 차액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제·통화안정채권 등을 한국은행이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리콘밸리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의 사태로 담보비율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액결제담보비율은 올해 2월 80%까지 올린 뒤 2025년 2월까지 100%까지 인상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2025년 8월(100%)까지 연기된 상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자금시장상황과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까지 살펴야 한다”며 “미국의 은행이 수시간 이내에 파산한 사실과 한국의 온라인 결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율인상을 계속 미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